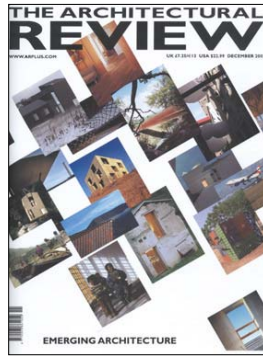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2005년 12월호



「AR」지가
매해 선정하는
신예건축상의
수상작들이 소
개되어 있다.

■ AR신예건축상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연례 'AR신예건축상'은 기성 건축가들이 의례 휩쓰는 각종 건축상들이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Luis Mansilla, Annette Gigon, Sean Godsell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올해의 수상작들은 재료와 테크놀로지의 독창적이고 적합한 사용, 환경적, 사회적 책임, 장소성의 구축, 맥락의 고려, 어려운 조건의 대지와 기후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소외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 많

았다는 점은 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신예건축가의 기준으로 45세라는 설정은 다소 관대해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지어진 건축작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즉 건축을 공부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건축가로서 자격을 갖추기까지 그만큼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매혹적인 이론이나 사이버 건축 작품도 '짓는다'는 건축의 기본적인 목표를 희석시킬 수는 없다. 올해의 수상작으로 세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Taira Nishizawa Architects의 일본 토모치
Forestry Hall

임업으로 유명한 산간지역의 언덕에 자리 잡은 체육관 건물로, 건축의 구축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철재 스페이스프레임 구조로 만들어진 유리박스의 무주공간을 내부의 목재프레임을 통해 지지하고 있는데, 하부는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그리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비정형적인 트러스 구조를 사용하여 다양한 높이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FNP Architekten의 독일 Pfalz 전시실

경제성과 유틸리티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은 이 작품은 1780년대에 지어진 후 2차대전 중 파괴된



일본 토모치 Forestry Hall



독일 Pfalz 전시실

돼지우리(Saustall)를 전시관(Schaustall)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기존 벽체 내부에 목재의 새로운 공간켜를 삽입(두 켠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하는 간단하고 명확한 개념과 실천을 통해 두 시간층을 동시에 간직한 작은 전시공간을 만들어냈다.

Trahan Architects의 미국 루이지아나 주 교회 콤플렉스

교육, 행정기능을 담당한 부속건물과 기도실로 구성된 교회시설로 주위 체계로부터 각도를 틀고 있는 기도실은 속세와 신성의 공간을 상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6면이 같은 크기와 재료로 구성된 기도실 공간은 방문자의 방향각각을 혼란시키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부정형의 개구부들은 예수 부활의 에피소드들을 형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종교적 설정을 제거한다면 미니멀리즘 계열의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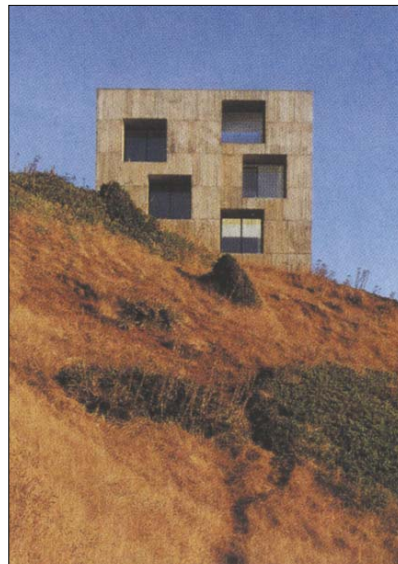
미국 루이지아나 주 교회 콤플렉스

부띠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건축가는 다양한 두께의 외벽을 통해 내부로 유입되는 빛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모태공간을 연상시키는 평온함과 경건함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 외에 최우수작으로 Li Xiaodong Design Studio의 중국 Lijiang 학교 및 커뮤니티회관, Thomas Heatherwick Studio의 영국 런던 Paddington의 접이식 교량, Antonio Portugal & Manuel Maria Reis의 포르투갈 Brufe 레스토랑, Sou Fujimoto Architects의 일본 홋카이도 정신요양원, K2S Architects의 핀란드 헬싱키 스타디움 캐노피,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건축학과의 중국 Maosi 교량, David Sheppard Architects의 영국 Cornwall St. Austell 교량이 소개되어 있으며, 6개의 우수작, 8개의 입선작 역시 게재되어 있다.

우수작으로 Pezo ● von Ellrichshausen Architects의 칠레 Coliumo 반도 주택

바다를 향한 칠레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이 주택은 추상의지, 기후, 자연조건이 모더니즘 속으로 융합된 결과물이다. 정연한 체계 속에서 3층 높이의 거실을 향해 식당, 침실 등이 제각기 창을 통해 교류하는 복합적인 구성을



칠레 Coliumo 반도 주택

취하고 있다. 부엌, 화장실, 계단, 창고 등 시설이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깊이 1m의 켠에 집중된 덕분에 주공간들은 보다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었다. 지역적 여건상 재료와 시공기술에서 큰 제한이 있었지만 Mauricio Pezo와 Sofia von Ellrichshausen는 거친 목재 거푸집을 이용한 현장 콘크리트 타설을 통해 원초적 느낌의 연구성을 얻어냈다.

■ 서적소개

그동안의 모더니즘 연구에서 그리 깊게 다뤄져오지 못했던 Eero Saarinen에 대한 Jayne Merkel의 저서 Eero Saarinen (Phaidon, 2005),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 르 꼬르뷔제의 국제연맹 프로젝트와 함께 1920년대말의 대표적인 대형프로젝트였던 Jan Brinkman과 Leendert Van der Vlugt의 Van Nelle 공장에 대한 저서 Van Nelle, Monument in Progress (De Hef, 2005), 기원전 27년부터 330년 사이에 지어진 로마의 볼트 건축에 대한 저서 Concrete Vaulted Construction in Imperial Rome: Innovations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에 대한 리뷰가 게재되어 있다.

(글/최원준/공학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실장)